

제7과 연습문제 풀이

D07.01 아래의 문장들을 한국어로 옮기시오.

D07.01(01) so 'ham tava patih.

바로 내가 너의 주인이다.

D07.01(02) kim bahunā vacanena?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많은 말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D07.01(03) tava hr̥di sukham astu!

너의 마음 속에 행복이 있을지니!

D07.01(04) sa vṛddhaḥ kavir gāyati. tasmāt sa puruṣebhyo rocate ca.

그 늙은 시인은 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좋아한다.

D07.01(05) so 'śvaḥ paśur api puruṣāṇām bhāṣām avagacchati. tasmān munayo 'pi tasmai namanti.

그 말은 가축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언어를 이해한다. 그래서 성자들조차도 그 말에게 경의를 표한다.

D07.01(06) etasmin kāle nadyās samīpe sa nṛpo bahūñ chatrūn paśyati sma.

이 때 강 근처에서(nadyāḥ 찐디도 가능) 그 왕은 많은 적들을 보았다.

D07.01(07) mama bhāryāstv ārye tvāṃ vivahānīti vadāmi ca sā nārī tatheti prativadati ca.

“내 부인이 될지니, 고귀한 여자여!(ārya [a.]의 여성형인 āryā의 부름격 ♫♣06.01) 내가 당신과 결혼하게 하시게(명령형 P. 1. sg.)!”라고 나는 말했고 그 여인은 “그렇게 하지요!”라고 대답한다.

D07.01(08) sā tasya priyaṃ labhate sma. tasmāt sā tena saha tasyā grāme sukhaṃ vasati.

그녀는 그의 사랑을 얻었다. 그래서 그녀는 그와 함께 그녀의 마을에서 행복하게 지낸다.

D07.01(09) śastrair vīrau kaṣṭhāñ chatrūñ jayataḥ sma. tayos tu nṛpaś ca tasya devī ca tau tyajataḥ.

칼들로 두 영웅은 지독한 적들을 무찔렀다. 하지만 그 둘의 왕과 그 [왕의] 왕비는 그 둘을 버린다.

D07.01(10) tasmāt kāraṇād damayantī nāma sundarī nārī tasyāḥ patyā saha tad aranyaṃ na

praviśati sma.

그런 이유 때문에 “다마얀띠”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여인은 그녀의 남편과 함께 그 숲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D07.01(11) samśayād eta ṛṣaya ete atyantam sundaryau kanye teṣām aranyam prati na nayanti.

의심 때문에 이(ete, pl. 모음싼디 ♫♣02.16) 성자들(ṛṣayah)은 그 두(ete, du. [f.]; 싹디예외 ♫♣02.20) 무척 아름다운 소녀들을 그들의 숲 쪽으로 데려가지 않는다.

D07.01(12) tasya putrikā tasyāḥ patyā tyaktā. tasmāc ca so 'tyantam tasmai krudhyati.

그의 딸은 그녀의 남편에 의해서 버려졌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매우 화가 났다.

D07.01(13) jagataḥ pate mamācāryo 'stv ity eṣa kumāras taṃ munim vadati. tathāstu kumāra mama śiṣya edhīti sa prativadati.

“세계의 지배자시여, 저의 스승이 되어주십시오!”라고 그 소년이 그 성자에게 말한다. “그렇게 하라, 소년이여. 내 제자가 되어라!”라고 그는 대답한다.

D07.02 다음 이야기를 한국어로 옮기시오. (mūṣikā-kanyā-kathā 2/2)

D07.02(01) tatheti sa ṛṣir mahāsiddho bhāṣate sma. sa sūryād meghasya vāse gacchati sma. tava śreṣṭho balo 'sti, megha. megho mama kanyām vivahatv iti taṃ megham sa ṛṣir vadati. he ṛṣe, kim iti tvam me tad vadasi. apy āryo mama balaṃ naiva jānāti. maruto nāma mad api balavattarāḥ. yatkāraṇam maruta eva mām harantīti prativadati sma sa meghaḥ.

“그렇구나!”라고 경지에 오른 자인 그 성자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태양으로부터 구름의 거주처로 갔다. “당신은 최상의 힘을 가졌다, 구름이여! 구름이 나의 딸과 결혼할지니!”라고 그 구름에게 그 성자는 말한다. “오 (he는 싹디 예외 ♫♣02.22) 성자여! 왜 내게 그것을 말하는가? 고귀한 자(인 그대)는 나의 힘을 정말 모르는가? 바람들이 실제로 나보다도 더 강하다. 왜냐하면, 바로 바람들이 나를 옮기기 때문이다.”라고 그 구름은 대답했다.

D07.02(02) asty evam ity ṛṣir bhāṣate maruto vāsam ca gacchati. tava śreṣṭho balo 'sti, marut. astu mama kanyā tava bhāryeti taṃ marutam api vadati. he mahāsiddha, mac ca parvatā eva balavattarāḥ. yatkāraṇam asmākaṃ prayatnenāpi parvatānām gatir nāstīti tasya maruto vacanam.

“그렇구나!”라고 성자는 말하고 그리고 바람의 거주처로 간다. “당신은 최상의 힘을 가졌다, 바람이여! 나의 딸이 당신의 부인이 되게 하시오!”라고 그 바람에게도 말했다. “오, 경지에 오른 자여! 나보다도 산들이 더 강력하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들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바람의 말이였다.

D07.02(03) evam evety ṛṣir bhāṣate. parvatānām vāse ca sa gacchati sma.

kiṃ tvam mama putrikāyā vivāhāya uttamo 'sīti sa punas taṃ parvatam pṛcchati sma. sa parvataḥ prativadati sma. mad apy adhikā mūṣikāḥ. te mūṣikā balavattarāḥ. yatkāraṇam eko mūṣiko 'py asmākaṃ śārīre chidrāṇi karoti. te mūṣikā asmākaṃ śārīraṃ ca balena sarvato bhedayanti.

“정말 그렇구나!”라고 그 성자가 말한다. 그리고 그는 산들이 머무는 곳으로 갔다. “당신이 내 딸의 결혼에 가장 나은 자인가?”라고 그는 또 그 산에게 물었다. 그 산이 대답했다. “나보다 쥐들이 더 낫다. 그 쥐들이 더 힘이 세다. 왜냐하면 한 마리의 쥐도 우리들의 몸에 구멍들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 쥐들은 우리들의 몸을 힘으로 사방에서 깨뜨린다.”

D07.02(04) evam astīti sa ṛṣir bhāṣate taṃ parvatam. punar mūṣikāṇām vāsam prati sa mahāsiddho gacchati. tava śreṣṭho balo 'sti, mūṣika. ihaiṣā mama putrikā. mūṣikāṇām patis tām pariṇayatv iti pravadatī sa ṛṣiḥ. tato mūṣikāṇām patiḥ prativadati. evaṃ bhavatu. kiṃ tu tava putrikā katham mama vivaraṃ pravīśatīti. satyam evaitad iti bhāṣata ṛṣiḥ. tatkālam tapaso balena ca sa tasya putrikāṃ sundarīm mūṣikāṃ karoti sma.

“그렇구나!”라고 그 성자는 그 산에게 말했다. 그리고 쥐들의 거주처를 향하여 그 경지에 오른 자가 갔다. “쥐여! 당신은 최상의 힘을 가졌다. 여기 이(iha-eṣā) 나의 딸이 있다. 쥐들의 왕은 그녀와 결혼하시게!”라고 그 성자는 외쳤다. 그리하여 쥐의 왕이 대꾸했다. “그렇게 하지요. 하지만 당신의 딸이 어떻게 내 구멍으로 들어오나요?”라고. “그것은 정말 그렇군.”하고 성자는 말했다. 그 때 고행의 힘으로 그는 자신의 딸을 아름다운 암쥐로 만들었다.

D07.02(05) tataḥ satyam evaitac chrutaṃ vacanam. sūryaś ca meghaś ca maruś ca parvataś ca daivena putrikāyāḥ patir na bhavati. ṛṣir api mūṣikam eva putrikāyāḥ patiṃ karoti sma. mūṣikā prāpnoti sva-jātim. daivam eva mūṣikāṃ sva-jātim nayati. sva-jātim tu prayatnenāpi kaṣṭam tyajatīti.

그러므로 이렇게 가르쳐진 말이 맞다. “운명에 따라 태양, 구름, 바람, 산은 딸의 남편이 되지 않았다. 성자마저도 바로 쥐를 딸의 남편으로 만들었다. 암쥐는 자신의 본래 태생을 얻었다. 바로 운명이 암쥐를 자신의 본래 태생으로 이끈 것이다. 자신의 태생이란 그러니 애 쓴다고 해도 거의 버릴 수가 없다.”라고.